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2020.1.22.(수)
15:00

위원장님 모두 말씀

2020. 1. 22.

금 융 위 원 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여 주신 은행장·부회장님,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서민금융진흥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간담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은행권과 함께 지난 해 포용금융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II. '19년 주요 성과

2019년은 세계경제의 변동성 심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은행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혁신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금융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① 첫째, 채무조정 제도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연체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단계까지
연체 쏘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원자 수가 '18년 9.3만명에서 '19년 10.6만명까지 확대되었고
제도 정비 前과 비교하여 원리금 감면폭도
44%에서 5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1월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추진*해 온
자체적인 '자율 채무조정' 지원도
'18년 대비 '19년 50% 증가**하여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기준」('18.2월 ~)

**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지원(만건) : ('18.1~3Q) 11.3 → ('19.1~3Q) 17.0

② 두 번째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차주와 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로 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직면한 저신용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은행에서 출시한 '햇살론17'*은,

* 대부업보다 저금리(17.9%)로 지원하고, 매년 금리를 1~2.5%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

작년말까지 4개월간 5만 3천명에게 3천 8백억원이 공급되어
당초 목표 공급규모였던 연간 5천억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작년 5월에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경우에도
올해 1월 현재까지 7개월간 1만 5천여 가구에게
총 7,157억원이 지원되어 청년층 가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❶ 7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❷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❸ 기존 고금리 전·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이와 같은 다양한 성과는

은행권이 “제1금융권”으로서

新상품 공급이나 제도운영 모범사례(Best practice) 구축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은행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Ⅲ. 향후 포용금융 정책 관련 당부사항

그러나,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과
조금만 도와드리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한
취약계층과 저신용 차주들이 많이 계신만큼,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제도 운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 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차주'라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또, 거액의 주담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back)”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② 두 번째로, 포용금융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만큼,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알린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17’ 이용 차주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노출될 확률이 높은만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려드리다면, 이분들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도
대학생·취업준비생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취준생이 많은 지역지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③ 마지막으로, '햇살론17' 이나 '청년 전·월세 대출'과 같이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 은행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으나,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반을 만들어,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의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III. 마무리 말씀

‘포용금융’은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채무조정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연체·취약차주로만 비추어졌던 분들도
‘고객이었고,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로서
재기와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은행 입장에서도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도
필요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